

大學生の 價値觀

黃 弼 昊
(東國大 哲學科)

大學은 眞理 발견과 탐구의 場이다. 大學은 眞理를 傳授하는 곳이며 진리의 왜곡 없는 傳達을 위하여 思想·表現의 自由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또한 大學은 연구의 업적을 社會에 宣布하여야 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대학에 몸 담고 있는 젊은이에게는 현실의 價値를 思考하고 批判할 수 있는 眼目과 自由가 있어야 하며 社會는 大學生の 批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아량을 지녀야 한다.

1. 價値의 多樣性

가치(value)란 원래 경제학에서 사용했던 전문 용어였다. 그것은 어떤 상품의 값어치(worth)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가치판단(valuation, value judgment)이란 그 값어치를 평가(estimate)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체(Rudolf H. Lotze), 리츨(Albrecht Ritschl), 니체(F. Nietzsche)와 같은 독일 철학자들이 가치판단이라는 어휘를 아름다움, 진리, 정의, 의무, 덕, 타당성, 행위의 기준과 같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좋은 것(the good), 바람직한 것(the desirable), 보람있는 것(the worthwhile)을 전부 가치있는 것(the valuable)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치와 가치판단이란 이제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¹⁾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 가치교환, 선호기준의 문제가 언제나 중요한 개념으로 토론되어 왔으며, 요즘에는 일반적 가치를 선호기준에 따라서 증진하거나 감퇴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인류학에서는 가치가 지배적인 문화 유형(Ruth Benedict), 문화적 초점(Alfred L. Kroeber), 문화의 주제(Morris E. Opler)의 문제와 연관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관련된 사실로서의 가치(values as relevant facts)’를 설명하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숨겨진 전제(hidden assumptions)를 파헤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학에서는 한편으로 역사적 사건의 변수(variables)로서의 가치를 분석하는 일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분석하는 역사가의 설명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²⁾

1) 황필호, “젊은이의 가치관”, 『길위에서』(수상록), 종로서적, 1985, p. 171.

2) Robin M. Williams, Jr., “Valu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p. 286.

철학에서는 특히 가치의 종류와 기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그리하여 루이스(C.I. Lewis)는 가치를,

- 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것
- ②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의적인 수단
- ③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내적인 것
- ④ 이상의 내외적인 두 가지 가치의 목적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가치
- ⑤ 그 전체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contributory value)

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유용하고, 그 바이올린은 음악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된 음악은 자체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렇게 연주된 음악은 결국 예술이라는 목표 자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 잔의 샴페인은 예술 감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로스(W.D. Ross)는 이상과 같은 가치의 종류에다가 도덕적 가치를 추가했다.

또한 라이트(Von Wright)는 가치를,

- ① 수단으로서의 가치(instrumental value)
- ② 기술적인 가치(technical value)
- ③ 실용적인 가치(utilitarian value)
- ④ 쾌락적인 가치(hedonistic value)
- ⑤ 행복으로서의 가치(value as happiness)

로 구분했다. 이를테면 좋은 방편은 수단으로 좋고, 무사고 운전 기술은 기술적인 가치이며, 좋은 충고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으며, 맛 있는 음식은 쾌락적이며, 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³⁾

가치의 본질과 종류에 관한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는 가치의 기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가 언제나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준의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었다.

에피쿠로스, 흄, 벤담, 밀과 같은 쾌락주의자들은 경험만을 지식 습득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경험은 언제나 쾌락을 추구한다고 주장

함으로써 쾌락을 가치의 유일한 기준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듀이, 루이스, 라이스(P.B. Rice)와 같은 類似 쾌락주의자들은 행복과 만족을 가치의 기준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쾌락주의를 반대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다모니아(eudamonia)를, 스피노자는 지식을, 브래들리는 자기 완성을, 니체는 ‘권력에의 의지’를 내세웠다. 그리고 모어(G.E. Moore), 로스, 셸라(Max Scheler), 하르트만(N. Hartmann), 페리(R.B. Perry)는 쾌락, 지식, 미적인 경험, 아름다움, 진리, 덕행, 조화, 사랑, 우정, 정의, 자기 표현, 자유와 같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가치의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상과 같은 가치론에 대한 철학적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多樣性이라는 것이다. 그러던 가치의 다양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다. 그러므로,

“……쾌락적인 가치만 인정하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이기주의자이며, 실제적인 가치만 인정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속물 인간이며, 실용적인 가치만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 행위의 동기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공리주의적인 인간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가치가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는 가치의 다양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⁴⁾

둘째, 그러므로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달라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독재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나는 문제는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너와 다른 생각을 내가 할 수 있고, 너와 다른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 총화라는 미명 아래 획일화된 여론만을 강요하는 것은 가치

3) 황필호, 앞의 글, pp. 171~2.
4) 같은 글, p. 173.

의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서, 가치의 다양성은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각기 다른 가치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이란 단세포 동물도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치는—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된다. 목표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적인 가치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용적인 가치의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가치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을 때, 그는 포괄적인 인간이 아니라 단편적인 인간으로 전락한다. 우리가 가치를 한 가지의 욕망이나 물건이나 행복으로 국한시킬 때, 우리는 인간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마치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

2. 價値의 常變性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달라야 한다는 상변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며 또한 적거나 더욱 많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여기서 ‘한국적’과 ‘민주주의’ 중에서 어느 것을 더욱 강조해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가 미국에서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에 걸맞은 토착화된 민주주의, 토착화된 외래 종교, 토착화된 외래 문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진리이다. 그러므로 50년 전의 효도를 그대로 따르라는 주장은 전근대적인 주장이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상변성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는 탄식의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 속에는 인생의 가치관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獨斷主義와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復古主義가 깔려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되는 기성 세대의 주장과 ‘舊官이 名官’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울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말고 울챙이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독단과 다름이 없다. 울챙이의 가치는 개구리가 되는 데 있으며 울챙이로 남아 있는 데 있지 않다.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비합리적인 가치관은 가급적이면 빨리 무너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 자체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그 변화를 유도해야 되느냐는 방향 감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복고주의는 마치 개구리가 다시 울챙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효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간직했던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이성관을 새로운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과거의 도방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다시 다뜻하게’ 하여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溫故而知新의 참뜻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은—아무리 포근하고 로맨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과거로의 복귀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⁵⁾

3. 價値의 共通性

필자는 지금까지 가치의 다양성과 상변성을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회담의 궤변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선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며, 진실로 가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보

5) 황필호, 앞의 글, p.174.

이는 행위만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치가 극단적인 주관성의 결과이므로 가치에 대한 모든 논의조차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가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時空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치는 몇 가지 공통점—비트겐슈타인의 표현으로는 家族類似性—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순한 본능적·육체적·반사적 행위는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물론 쾌락을 가치로 간주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장애물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거나, 무릎을 치면 발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행위는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행위라기보다는 조건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치란 행위자의 의지가 포함된 행위에만 적용된다.

물론 가치로운 행위가 본능을 ‘규제’할 수는 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행위란 인간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what is desired)을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것(what is desirable)으로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능적인 행위 자체는 가치롭거나 반가치로운 것이 아니다.⁶⁾

둘째, 가치란 記述的(descriptive)인 개념이 아니라 評價的(evaluative)인 개념이다. 인간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평가적 및 명령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치란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비록 막연할 수도 있지만—나름대로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가치관에 대한 토론을 단순한 이론적인 작업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치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원칙이다.

셋째, 그러므로 가치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가치(positive value, or value)와 부정적인 가치(negative value, or disvalue)가 있다. 삶에 보

탤이 되는 것과 삶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 자신에게 유익하고 또한 자신에게는 유익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장래에 유익한 가치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가치가 있다. 전자를 우리는 사랑, 자비, 仁, 희망, 행복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증오, 살생, 私, 절망, 불행이라고 부른다.

네째, 그러나 모든 가치가 가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절대로 中性的(neutral)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특별히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지만 해롭게도 하지 않으면서 고고히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중성적인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성적인 가치란 탁상공론을 좋아하는 윤리학자들이 참안해 낸 이론에 불과하다.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해가 되지도 않는 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골방 속에서의 자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에 관한 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것은 ‘강요된 선택(a forced option)’이다. 가치론의 문제가 윤리학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치는 선택을 강요한다.”⁷⁾

4. 大學生의 價値觀

첫째, 대학생은 젊다. 그러므로 대학생은 젊은이에게 특별히 필요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던 젊은이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며 비록 연령이 낮아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애늬은이에 불과하다. 육체의 경우 남자는 24세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여자는 22세가 가장 예쁜 시기라고 한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후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신적 및 인격적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대학생은 왜 젊게—다시 말해서, 성장하면서—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성장하는

6) Williams, 앞의 글, p.283.

7) 황필호, 앞의 글, p.175.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성장하지 않고 자신의 울타리에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둘째로 성장하는 사람만이 존경을 받는다. 과거의 위대한 업적, 연구, 결과만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은 언젠가는 조소를 받게 된다. 성장하는 사람은 만년 청춘이다. 그리고 누구나 만년 청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젊은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단한 사고를 계속하고 또 그 사고의 내용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행동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성장한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젊은이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는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하지 못하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성 세대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가치관을 직접 현실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한다. 젊은이는 자유의 공기를 숨쉬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대학생의 경우에 더욱 적용되는 진리이다.

둘째, 대학생은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젊은이의 일반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의 구성원이라는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일은 대학이 어디까지나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대학과 사회의 이원론은 서양철학의 유물일 뿐이다. 대학은 사회에 두 발을 딛고 있다. 대학생은 사회에 대하여 발언을 하지 말고 사회인은 대학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대학의 社會性'을 망각한 발상이다.

물론 대학은 단순히 현실을 따라가는 시녀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따라가는 창녀로 전락하지 않은 대학은 언제나 현실과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해야 하며, 현실의 보이지 않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 대학의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 대학은 진리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곳이

다.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다. 추구할 수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진리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쓰라림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먼 눈으로 보면 역시 '잔인한 진실은 없다'는 주장이 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 탐구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은 진리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탐구한 진리를 전달하고 敎授하는 곳이다. 전달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교양교육의 선구자인 J.S. 밀이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진리를 전달하는 교수도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청사진을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제시하고, 그들로부터의 자유로운 비판적 토론을 환영해야 한다. 말로만의 자율이 아니라 진실로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교수의 자유로운 진리 전파의 역할이 없이는 대학이 존재할 수 없다.

세째, 대학에서 탐구되고 전달된 진리는 다시 사회에 선포(선언)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학의 임무는 캠퍼스를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은 사회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 속의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학의 이러한 세 번째 기능이 어느 정부, 당파, 이데올로기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과 반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선포하는 진리가 사회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학이 多數의 暴力인 世論의 전체적 위협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나아가서 다수만이 지배하는 '民主主義의인 오류'를 시정해 줄 수 있는 대학의 적극적인 사회 기여가 가능하게 된다.”⁸⁾

그러므로 사회는 사회에 대한 대학생의 비판

8) 황필호, 「이데올로기, 해방신학, 의식화교육」, 종로서적, 1985, pp.101~2.

을 더욱 커다란 비판으로 내려치지 말고 그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그 비판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관용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비판이 묵살되고 모든 성토가 침묵화되었을 때 그것은 대학과 사회에 동시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 총화란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획일화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사람과 상이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학생의 비판을 건전하게 수용하는—문자 그대로의—정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의 가치관을 무조건 탄압하지 말고 선도해야 한다. 대학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비판하기보다는 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첫째, 영원 불변하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는 없다.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젊은이는 성장을 목적으로 한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실 안주보다는 현실 개

혁, 현재 긍정보다는 미래 긍정, 소아보다는 대아, 순간보다는 역사를 설계하려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현상 유지의 가치관은 잠시 동안의 포근함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장기를 포기한 사람의 가치관일 뿐이다. 젊은이는 젊게 살아야 한다.

세째, 대학의 본질은 合理的인 反省(rational reflection)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반성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며, 자유를 상실한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다.

“자유란—언뜻 보기에는—무정부 상태와 비슷하다. 아무런 질서와 권위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 힘은 바로 그렇게 무질서한 듯이 보이는 곳에 있다.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고, 언제나 비판적인 안목을 잃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젊은이는 획일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의 목표와 대학의 이념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다.”⁹⁾

몽자는 일찌기 임금은 임금이어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하고, 아들은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젊은이이도록 하고, 대학생은 대학생이도록 하자. 그러면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대학생의 가치관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건전하게 수립될 것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우리가 기회를 가지려면. *

9) 황필호, 앞의 책, p.107.